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李鍾容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기고」 약초전담연구기관 절실 …3면
◉주산단지순례(작약-의성)…4면
◉시세동향 ……5면

국산한약재상설매장

소비자 신뢰도 높아

한번 다녀간 고객 다시 찾는 경우많아

생약살리기차원, 소비자 회원 모집 계획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10일 문을 연 이래 많을때는 6백여명, 하루 평균 2백명 정도가 꾸준히 상설매장을 찾고 있다.

약재를 구입해 가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주부들이며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가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품목은 가정에서 손쉽게 차로 끓여 마실 수 있는 영지, 구기자, 대추, 오미자, 산수유를 비롯 십전대보탕용으로 들어가는 황기 당귀 천궁 백출 작약등. 한의원이나 한약방의 처방전을 가져와서 해당 약재를 직접 구입해 가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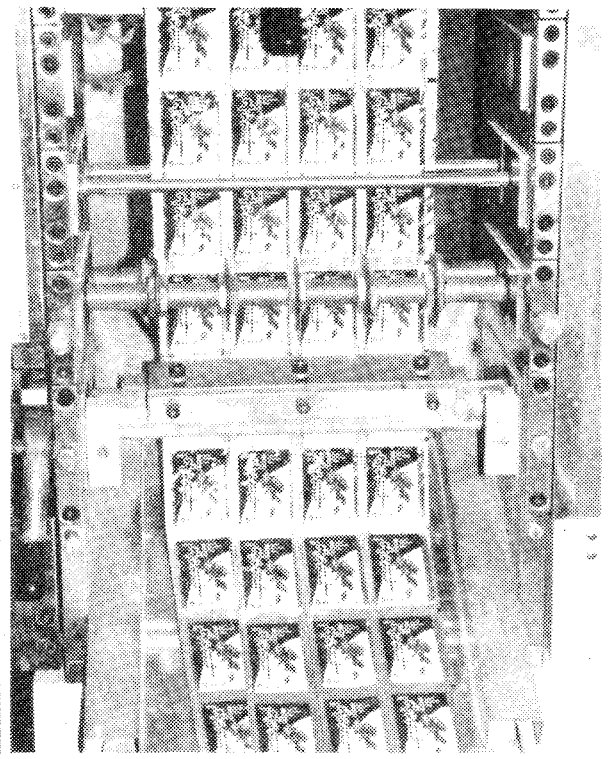
상설매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 경북에서 이곳까지 올라왔다는 이미례씨(45·경북 경주시 신평동)는『전에는 어떤게 수입이고 국산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 사면서도 찜찜했는데 이런 매장이 생기고 보니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흡족해 했다.

상설매장 남정학 장장은『한번 다녀간 사람이 매장을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국산한약재에 대한 생산지·생산자 표시 등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협회가 추진중인 우리생약살리기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움직임이다.

생약협회는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우리생약살리기를 위해 소비자회원도 모집할 계획이며, 회원에 한해서는 상설매장에서 판매하는 국산한약재에 대해 어느 선까지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은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가 국산생약재의 우수성 홍보와 생산농가의 판로확보를 위해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에서 개설한 것이다.



생약茶 개발 '붐'

최근 생약재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주로 한약재를 조제하는데 이용돼온 생약재가 차, 드링크, 엑기스, 술로 개발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청양의 구기자, 구례 산수유를 비롯 동굴레(황정), 두충 등이 캔음료와 과립차, 티백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다.

특히 구기자 한과는 소비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은 품목.

이외에도 야생 산딸기의 일종인 복분자로 달린 복분자술이 전북 고창군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연말께 선보일 예정이며, 태백농협이 개발에 착수한 당귀음료가 곧 시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태백농협이 생산하는 약용음료는 당귀와 황귀를 비롯 천궁 대추 등을 원료로 해서 「고원디」와 「늘푸른 잔디」 2가지 종류의 캔으로 판매될 계획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량이 아직은 한정되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엇보다 한약재를 이용한 음료라는 점에서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또한 계속된 한약업계 경기침체현상에 새로운 돌파구로, 약초농사를 짓는 국내재배농가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약재를 살립시다"

한약재는 조상대대로 선조들의 건강을 지켜온
우리의 전통의약입니다.
수입이라고 무조건 저질은 아니지만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약재가
우리 몸에 더 좋습니다.
소중한 자원인 생약재
우리 손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원일동